

내 故郷 쌀 압구정동 일대에서 판매

재경포천시민회, 고향 쌀 팔아주기운동 3년째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에 이어 직접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11월21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단지에 광고물을 돌리며 내고향 포천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선 재경포천시민회 이문용 회장은 광고물을 통해 "저의 고향은 휴전선과 가까이 개발이 안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포천이며 고향 모임인 재경포천시민회 회장으로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내 고향 포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포천 햅쌀밥이 너무너무 맛이 좋아 한식구가 맛 볼 수 있는 견본 햅쌀을 드리오니 밥맛

보시고 정말 밥 맛 좋으시면 무거운 쌀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안방에 앉아서 전화로 주문만 하시면 밥맛 좋은 햅쌀을 농민과 직거래하여 산지 원가로 값싸게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또 고향 쌀에 대해서는 고품질 비씨 고시히카리를 게르마늄 농법으로 기술지도하여 포천농가에서 계약재배한 氣찬 게르마늄 쌀은 택배비 포함해서 20kg 5만원, 수라, 운광벼씨 품종으로 포천농가에서 재배한 해송촌 으름쌀은 택배비 포함 20kg 4만3천원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재경포천시민회는 2005년3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내고향 포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경포천시민회의 고향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경포천시민회는 11월21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단지에 광고물을 돌리며 내고향 포천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포천시 창의적인 공직자 육성 계획

한화콘도에서 포천시 비전스쿨 워크숍 개최

포천시는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포천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가치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장차 미래의 포천시를 견인할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목표를 창출하고 달성된 목표는 결국 조직과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오늘을 계기로 비전, 미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직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면 조직과 함께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과 조직의 비전 일치 강조했다.

특히 시대가 변하면 변화된 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가 필요하며 지금 이 시대는 실천하고 행

동하는 공직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하지 않고 결과가 없는 공직자는 결국 실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성과중심의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개인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향상 최고, 최상을 향한 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꾸준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을 리드하는 창의적인 공직자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포천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가치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 동참

자문위원회 제26차 임원회의에서 밝혀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보용)는 11월20일 송우리 청정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오는 12월15일 송우웨딩홀에서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제4기 자문위원회 임원이 출범한 후 첫 모임에서 창간기념식 협조사항과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건, 자문위원회 12월 정기회의 건이 상정됐다.

포천신문 창간기념 협조사항과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건은 200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창간기념식에 100만원 찬조와 불우이웃돕기 100만원을 기탁하기로 의결했다.

또 자문위원회 12월 정기회의는 창간 18주년 기념행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기타안건 토의에서는 자문위원회 환경분과 신설을 논의한 끝에 집행부에 분과신설을 포함한 위원재배정을 위임했다.

한편 이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면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는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줘 감사하다"면서 "12월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대한 논의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11월20일 임원회의를 갖고 오는 12월15일 송우웨딩홀에서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32) 때까치 [Bull-headed Shrike]

“귀염둥이 학살자”

추수가 끝난 들녘 한 칸에 외로이 서있는 앙상한 나뭇가지 꼭대기에 앉아 꼬리 깃을 빙글빙글 돌리며 “때,때,때”거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위로 젖혀 하늘을 자주 쳐다 보고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눈가의 검은 선과 매부리처럼 밑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부리를 하고 먹이를 노려보는 저 눈빛을 보니 비록 몸집은 참새만하지만 한눈에 때까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의 특징 때문에 때까치는 이름이 붙여진 귀염둥이 멧금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때까치과에는 81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때까치, 노랑때까치, 흰때까치, 긴꼬리때까치, 물때까치, 큰재개구마리 등 6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때까치가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관찰됩니다.

때까치는 1년내내 볼 수 있는 텃새이지만 나뭇잎이 떨어진 가을 이후부터 자주 관찰됩니다.

이들은 곤충과 들쥐는 물론이고 작은새,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조류로 사냥한 먹이를 한번에 먹지않고 나뭇가지나 뽕쪽한 가지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먹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때까치의 발톱이 약해서 먹이를 쥐고 뜯어먹을 수가 없어 나뭇가지에 먹이를 꽂아놓고 부리로 찢어 먹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때까치를 Bull-headed Shrike라고 하는데, 이는 학살자라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과 사나운 성격 때문에 이처럼 무서운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육식을 하는 때까치의 먹이 습성 때문에 푸줏간새라고도 불리워지는데, 때까치가 자주 앉은 나무에 가보면 개구리나, 곤충, 매미 등을 자신의 전리품처럼 꽂아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포천천 제방에서 사고로 죽은 붉은머리오목눈이(뱀새)를 물어다가 뽕쪽한 나뭇가지에 꽂아두는 때까치의 모습을 목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때까치가 먹이를 저장



2006.12.10 포천천에서 촬영

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표시함과 동시에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번식기 철에는 숫컷이 자신의 사냥실력을 과시하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냥하여 저장해둔 먹이를 전부다 찾아 먹지는 못하고 그 일부만 먹이로 찾아 먹고 그 나머지는 박새나 다른 철새들이 찾아내어 먹는 것을 관찰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때까치의 기억력의 한계(?)때문인지 먹이를 저장하여둔 장소를 전부다 찾지 못해 그 일부만 먹이로 사용되는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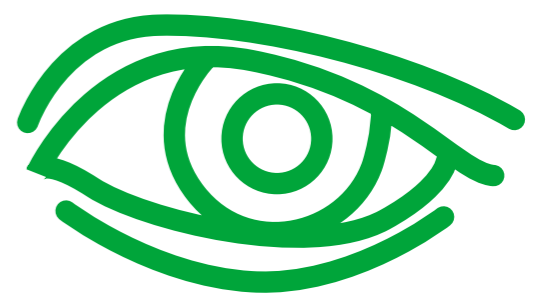
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탐조에 만난 후기 심 많은 때까치는 사진촬영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다는 새를 촬영을 하고 있으면 시샘이라도 하는 듯이 자신도 이쁘게 찍어달라고 주변의 나뭇가지에서 계속해서 서성이다가 막상 카메라를 들어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개구쟁이 같은 이쁜 녀석입니다.

포천신문 조시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경기도의회는 1,100만 도민의 귀와 눈이 되어 일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1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모여사는 경기도는 그만큼 해결해야할 현안이 전국 어느 곳보다 많습니다. 지난 1년간에도 1,100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경기도의회, 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1,100만 도민의 귀와 입이 되어 도민의 어려운 곳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해결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